

Feb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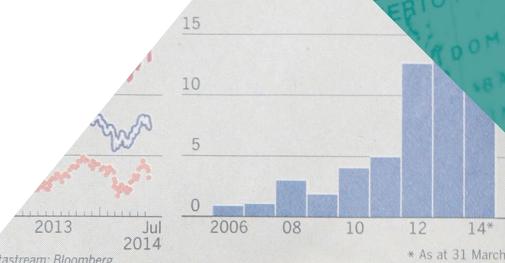
Hana Market Monthly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Datastream: Bloomberg

* As at 31 March

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n 17 times). About \$14bn is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sa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JPMorgan estimates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erty's best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목 차

금리	03
달러/원 환율	05
엔/원 환율	07
유로/원 환율	08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These tw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trade below book value
times Rosneft's in
s reserves (Exxon
es). About \$14bn is
due this year, \$1
Rosneft may pay it
ing to sell its oil -
. Sanctions still allow
to US dollar clearing.

ance of ITV in the next six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of ITV would cost £7.4bn at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terest, tax depreciation and
ation. But without a bigger
liberty will be a watcher of
content, rather than a
ant in it

rofit schools
g is business in the US.
trill dollars is spent each
on secondary education.
ness of listed, for-profit,
ry schools is not so hot.
the class in this niche is
n Colleges, which is selling
ng nearly all its campuses
g sanctions from the
ent of Education.
epartment has been cracking
for-profits following a 2012
sional review that found half
nts drop out and one-fifth



금리

1월 동향 한·미 추가 재정 확대 정책 이슈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금통위의 완화적 기조와 IMF 통화완화 권고 이슈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

초반, 미 상원 선거의 '블루웨이브' 확정 이후 경기부양 기대 확대 속 국내외 주요 국제금리 상승

- 1월 초, 미 상원선거에서의 '블루웨이브' 이후 경기부양 확대 기대감이 위험선호 자극하며 미국채 금리 상승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되는 모습

- 1월 초, 2석을 놓고 치뤄진 미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 블루웨이브 실현
- 이러한 블루웨이브는 재정부양 정책 추진을 두고 중요성이 커진 의회 역할에 대한 시장 기대가 반영되며 미국채 금리 상승을 견인하였고, 국고채 금리도 이에 연동 되며 상승 출발

중반, 연준 테이퍼링 이슈 부각과 엘런 지명자의 강력한 부양 의지 피력 등도 미국채 금리에 연동한 국고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중반, 연준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재무장관 지명자의 강력한 부양책 언급이 금리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으나, 비둘기적 금통위 스탠스가 상단 제한

- 1월 중반, 연준위원의 미 경제상황에 따른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엘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천명 영향 반영 속 금리 상승 추세 지속
- 이후, 대내적 한은 금통위 금리동결 결과 이후 총재 회견 내용이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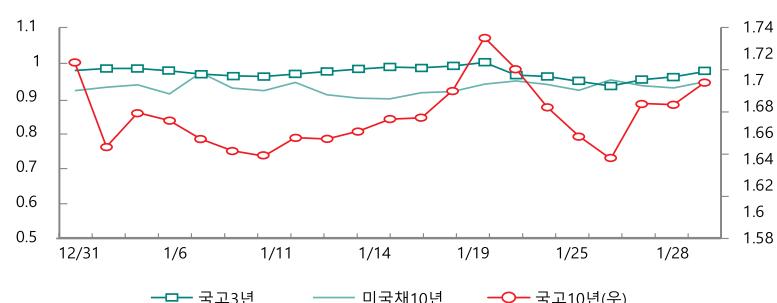
후반, 연준의 완화적 FOMC 결과와 IMF의 국내 통화완화 권고 등이 금리 하락 전환 이슈로 작용

- 후반, 국내 손실보상 법제화 이슈에도 완화적 FOMC 결과와 IMF의 국내 통화완화 권고 소식 등이 금리 하락 전환에 주요인으로 작용하며 마감

- 1월 후반, 기재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관련 언급 등이 채권시장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FOMC 1월 회의 결과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IMF로부터의 국내 통화완화 권고 이슈 등이 반영되며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1월 평균
국고채(3년): 0.97%
국고채(10년): 1.67%
T-Note(10년): 0.93%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2월 전망

한·미 강력한 재정정책 기조에도 유럽경제 더블딥 우려, 국내 내수 부진 지속 등이 국고채 금리 소폭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

평균	2021. 1Q ^F	2021. 2Q ^F	2021. 3Q ^F	2021. 4Q ^F
국고채(3y, %)	0.95	0.95	0.99	1.15

- 미 옐런 재무장관의 적극적 재정정책 피력 의지에 따른 미국채 금리의 점진적 상승에 국고채 금리 동조화도 영향을 받으며 상승 전개될 전망
 - 옐런 미 재무장관의 미국경제의 장기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질 수 있음에 따른 적극적 재정정책 시사 등이 미국채 금리의 점진적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에 따른 국고채 금리 동조화 가능성 속에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이슈에 따른 영향도 국고채 금리 장기구간에서의 상승력을 높일 전망
- 연준은 1월 FOMC에서 테이퍼링 추측 경계하며 완화적 기조 시사. 여기에 유럽은 변종 코로나와 재봉쇄 영향에 더블딥 우려까지 부각하며 글로벌 경기 우려 확대에 영향. 이는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 연준은 1월 FOMC에서 채권매입에 대한 테이퍼링 추측을 경계하는 가운데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통화완화를 지속할 것을 시사
 - 반면, 유럽은 변종 코로나 이슈 속 경제 재봉쇄 등으로 더블딥 우려가 다소 강화된 상황. 이러한 상기 연준의 저금리 지속 기조와 글로벌 경기 우려가 확대되는 대외적 양상은 국고채 금리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 한은의 통화완화적 기조 유지와 수출경기 호조에도 내수, 고용 여건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슈에 따른 수급 부담은 금리 하락 추세 제한할 전망
 - 반도체 호조 등 국내 수출 경기 회복세에도 내수와 고용 불확실성이 개선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은 통화완화 지속은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이슈 등이 국고채 수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금리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강한 재정부양의지와 국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 등이 대내외 금리 장기구간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유럽의 경제 재봉쇄 속 연준은 자국 및 유럽 더블딥 영향을 제한하고자 완화적 기조 시사. 이러한 요인들은 국고채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2월 국고채(3년) 금리는 0.95%~1.1%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의지 · 국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 반도체 등 핵심 업종 수출 호조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두기 정책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진 속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 강화



달러/원 환율

1월 동향 미 블루웨이브에 따른 추가 재정정책 이슈 속 미 금리 상승, 대중국 강경 정책 의지, 공매도 이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환율은 1,120원에 근접

월 초, 코로나 변종 이슈, 미 상원 선거 블루웨이브 영향이 달러 강세 견인

중반, 연준에서의 테이퍼링 언급 부각, 국내 외국인 증시 순매도가 달러 강세 견인 그러나 미 재무장관의 강력한 재정부양 의지가 달러 약세로의 전환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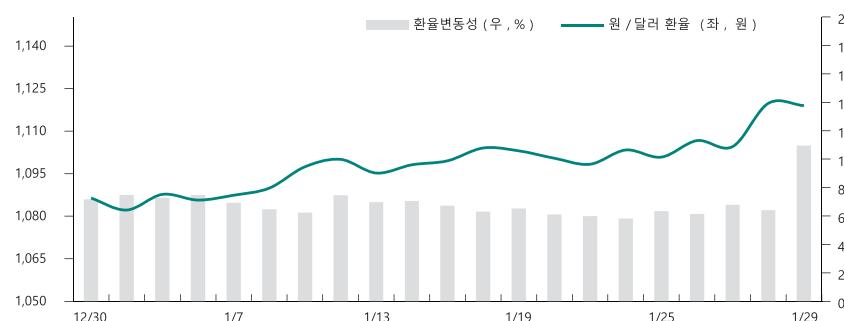
후반, 미 재무장관 지명자에 의한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이슈 부각 속 미 금융시장의 공매도 이벤트에 따른 위험회피 요인 속 환율 1,120원 근접

- 월 초, 유럽發 변종 코로나 이슈가 위험회피에 영향 미친 가운데, 미 상원 선거의 블루웨이브 결과, 대규모 부양 기대 속 국채금리 상승이 달러강세 견인
 - 1월 초, 주요국 코로나에 대응한 백신 접종에도 영국과 브라질발 코로나 변종 이슈가 확대되며 통화시장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는 양상 시현
 - 여기에 미 상원 2석에 대한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따른 ‘블루웨이브’ 기대의 실현 이후 대규모 부양정책 기대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도 달러 강세 견인
- 중반,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부각, 대내적 국내 증시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강화로 큰 폭 상승하다, 재무장관 지명자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에 하락 전환
 - 1월 중반, 미국 경기가 하반기 강한 반등을 보일 경우 테이퍼링 견해를 보인 연준 위원의 언급 소식에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하며 환율 큰 폭 상승
 - 그러나 엘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가 달러 약세 전환에 영향을 미치며 하락 전환. 그러나 중국에 대한 불균형 무역 관행 언급 등 대중국 강경 정책 의지 등으로 달러 약세 전환이 다소 악화된 흐름으로 전환
- 1월 후반, 엘런 지명자의 강경한 대중국 불균형 무역관행 시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미국 경기 불투명성 언급과 미 금융시장의 공매도 이슈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등으로 1,120원대 근접하며 마감
 - 1월 후반, 미 재무장관 지명자의 중국에 대한 불균형 무역 관행 언급 등 대중국 강경 정책 의지 표명 등이 1월 중반 달러 약세 흐름 되돌림을 견인
 - 이후, FOMC에서 파월의장의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시사 발언과 미 증시의 공매도 이슈 부각이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해 환율은 1,120원에 근접하여 마감

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099.0원

1월말 달러/원 환율 : 1,118.8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하나은행

2월 전망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미국의 대중국 강경 압박, 국내 내수 침체 등이 소폭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평균	2021. 1Q ^F	2021. 2Q ^F	2021. 3Q ^F	2021. 4Q ^F
달러/원 환율(원)	1,100	1,120	1,115	1,110

- 1,080원대의 저점 확인 분위기 확산 속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로도 지속되는 변이성 바이러스 공포 심리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 견인할 전망
 - 1월 초반까지의 달러 약세 반영하며 하락한 달러/원 환율은 1,080원대가 단기 저점으로 인식되는 국면으로 판단
 - 그러나, 코로나 양상의 변종발 이슈 부각 이후, 유럽 재봉쇄와 더블딥 우려 확대를 키우고 있다는 측면이 달러 강세 전환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미 경제 장기 불확실성 국면 지속에 대한 우려, 재정정책 합의 관련 의회 협상 난항 예상 등이 달러 강세에 영향 미칠 전망. 여기에 미 행정부 대중 압박 수위 감안 시 미·중 갈등 재격화 이슈도 달러강세 요인으로 예상
 - 1월 FOMC 회의 결과 이후, 경제 불확실성 국면 지속 가능성 언급과 이에 대응한 재정정책 합의 도출 시 협상 난항 우려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미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무역 및 환율 갈등이 재격화 할 수 있는 측면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으로 판단
- 통화당국 완화적 기조 속, 추가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기대가 원화 강세 요인. 반면,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 속 국내 중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강화 시점 등에서 상대적 원화 약세가 부각될 전망
 - 국내 경제가 수출 호조 등 견조한 개선을 보이지만, 고용부진과 저물가 상황 등으로 완화적 기조를 내비친 통화당국에 대한 기대 등이 원화 강세를 견인할 전망
 - 그러나 거리두기 강화 지속으로 민간소비 침체 등이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중시 변동성 확대 전이 등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강화 시점에서는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이 환율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및 브라질발 변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 우려 · 미국 경제의 장기 불확실에 대한 연준의장 및 재무장관 등의 언급 · 미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스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 기대감 · 한·미 통화당국의 완화적 기조 유지

환율의 연초 1,080원대 확인
지 저점으로 인식될 가능
성이 큰 가운데 변종 코로
나 이슈에 따른 유럽발 경
기 재침체 우려 등이 달러
강세 모멘텀 제공할 전망

연준의장과 재무장관의
미경제 장기 불확실성 언
급 속 재정합의 도출시까
지의 난항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점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
에 영향을 미칠 전망

2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
는 1,095원~1,125원



엔/원 환율

1월 달러/엔은 미 금리 상승 속 강달러에 반동한 후 상승세 지속. 엔/원은 위험선호 동향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상승

엔/원 환율 전월대비 16.2주 상승한 1,068원에 마감

- 미 금리 상승,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엔/원 환율 상승 시현

- 월 초, 조지아주 상원투표 결과 블루웨이브 확인 속 미국채 금리 상승,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 원화 약세 요인과 금융시장 위험선호 분위기 등 원화 강세 요인이 혼재함에 따라 엔/원 환율 등락 시현
- 월 중반,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른 위험선호가 달러 강세를 제한했으나 원화 약세가 지속되어 엔/원 환율 상승 흐름 이어감
- 월 후반, 글로벌 증시 불안 속 위험선호 둔화에 엔/원 추가 상승하며 마감

2월 달러/엔 환율은 제한된 달러 강세 압력에 상승 우위 전망. 엔/원 환율은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전망에 상승 예상

달러/엔 환율 제한된 상승 전망

- 미국 추가 경기부양 이슈가 달러/엔 환율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1.9조달러 추가 부양 대기 속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가 달러/엔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정책 초기의 유동성 확대 기대와 그에 따른 위험선호가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BOJ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자금지원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기한연장 및 금융완화 가능성은 엔화 약세요인이나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
-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와 백신 효과 기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등도 환율 등락에 영향을 받을 전망

엔/원 환율은 상승 우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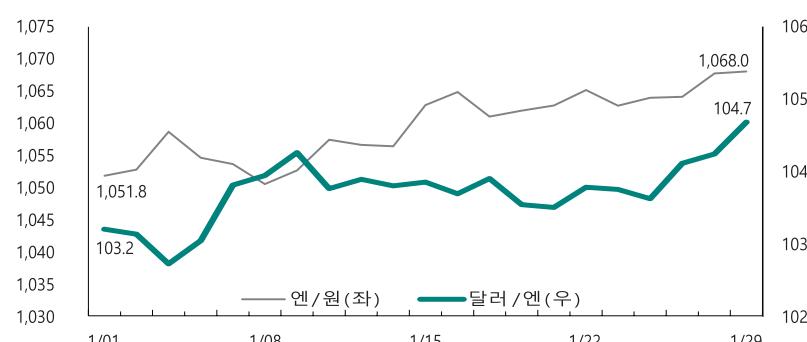
- 원화 약세 흐름 속 엔/원 환율의 제한적 상승 전망
- 미국채 금리 상승 효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미중 무역마찰 등이 원화의 상대적 약세에 강하게 작용하면서 엔/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해외 선박 수주 등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3.7엔

1월 엔/원 평균환율 : 1,059.5원

2월 엔/원 예상 범위 : 1,040~1,08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1월
동향

유로/달러는 약달러 영향으로 1.23달러까지 상승했으나 미금리 상승 속 달러 강세, 유로존 코로나19 재확산, 伊 정치불확실성 등에 큰 폭 하락 후 낙폭 축소. 유로/원은 원화 약세 영향으로 1,355원까지 상승

- 유로화의 등락 속 원화 약세 영향으로 유로/원은 월초 가파른 상승 시현 후 제한된 변동을 이어가다 월 후반 다시 급등하며 마감
 - 월 초, 유로당 1.23달러까지 상승한 유로화 강세가 유로/원 환율 가파른 상승 견인한 후 제한된 움직임
 - 월 중반, 미국채 금리 상승 속 유로화 및 원화 동반 약세 영향으로 유로/원 환율은 1,330원 초반에서 좁은 변동 시현
 - 월 후반, 예상보다 덜 도비시했던 ECB 통화정책회의와 伊 연정 신임안 투표 가결 등에 다시 강세를 보인 유로화와 달리 중시 변동성 확대 속 가파른 약세 시현한 원화 영향으로 유로/원은 1,355원까지 상승감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38.2원 상승한 1,355.7
원에 마감

2월
전망

유로/달러 환율은 달러 지지력 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여파 등이 하방압력 높일 전망. 유로/원 환율은 원화 약세 우위 속 제한적 상승 전망

- 유로존 경기 부진 및 ECB 유로화 강세 우려 등에 유로 약세 전망
 -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로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독일 등 주요국 셧다운 여파, ECB 유로화 강세 우려 발언 등이 유로/달러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 다만, EU 공동기금 실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이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유로/원 환율은 위험선호 둔화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상승 예상
 - 유로화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여파 등에 따른 원화 약세가 유로/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유로/달러 환율 하락 전망

유로/원 환율 상승 우위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2174

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37.5

2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40원~1,37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2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RBA 통화정책회의	3	4 英 통화정책회의	5	6
	한 1월 수출/수입(+2.6%/+1.8% YoY) 1월 무역수지(\$6,944M) 미 1월 Markit 제조업 PMI(59.1) 유 1월 Markit 제조업 PMI(54.7) 12월 실업률(8.3%) 중 1월 Caixin 제조업 PMI(53.0) 일 1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F]	한 1월 CPI(0.2% MoM, 0.5% YoY) 미 1월 ISM 제조업지수(60.7) 1월 ISM New Orders(67.9) 1월 ISM 고용(51.5), ISM 구매물가(77.6) 일 1월 본원통화 유 4Q GDP 호 RBA 기준금리(0.1%)	한 1월 외환보유고(\$443.1b) 미 1월 Markit PMI 종합/서비스 유 1월 Markit PMI 서비스(45) 1월 Markit PMI 종합(47.5) 1월 CPI(0.3% MoM, -0.3% YoY) 중 1월 Caixin 종합 PMI(55.8) 1월 Caixin 서비스 PMI(56.3) 일 1월 지분은행 PMI 종합/서비스[F]	미 1월 ISM 서비스(57.2)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지수 유 12월 소매판매 (-6.1% MoM, -2.9% YoY) 영 BOE 기준금리(0.1%)	한 1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일 1월 실업률(6.7%) 시장당 평균임금 1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1월 내구재 주문[미] 제조업 수주(-0%) 1월 무역수지(\$-68.1b) 중 12월 공장生주(2.3% MoM 63% YoY)	
7	8	9	10	11 한국 휴장(설날 연휴)	12 한국 휴장(설날 연휴)	13 설날 연휴
	유 2월 센트스 투자자기대자수(3) 독 12월 산업생산(0% MoM, -2.6% YoY) 일 12월 BoP 경상수지 1월 은행대출	독 12월 무역수지(17.2b) 12월 경상수지(21.3b) 일 1월 통화량 M2(9.2%, YoY), M3(7.6%, YoY) 1월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9% YoY)	한 1월 실업률(4.6%) 미 1월 CPI(0.4% MoM, 1.4% YoY) 중 1월 CPI/PPI(0.2%/-0.4%, YoY) 일 1월 PPI(0.5% MoM, -2.0% YoY)			미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소매판매
14	15	16	17 韩国 금융정책회의	18	19	20
	일 12월 설비기동률(-2.9% MoM) 12월 광공업생산[F] 유 12월 무역수지	한 1월 수출물가지수 (-0.1% MoM, -5.4% YoY) 1월 수입물가지수 (1.8% MoM, -10.2% YoY) 유 2월 ZEW 서베이 예상(58.3) 4Q GDP, 고용 일 12월 3자 산업자수(-0.7% MoM)	한 1월 통화공급 L(1%, MoM), M2(0.9%, MoM) 미 1월 PPI(0.1% MoM, 0.8% YoY) 1월 설비기동률, 광공업생산 유 12월 건설생산(-4% MoM, -1.3% YoY) 일 12월 핵심기계수주 (1.5% MoM, -11.3% YoY) 1월 수출/수입(2.0%/-11.6%, YoY) 1월 무역수지(¥75.1b)	미 FOMC 회의록 2월 팔리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1월 주택착공건수(5.8% MoM) 1월 건축허가(4.5% MoM) 1월 팔리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8.6) 1월 수출물가지수(8% MoM, 0.2% YoY) 1월 수입물가지수 (0.9% MoM, -0.3% YoY) 유 1월 CPI(-0.3% YoY) 일 1월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	미 2월 Markit PMI 제조/종합/서비스 유 2월 소비자기대자수 2월 Markit 제조업/서비스/ 종합 PMI 독 1월 PPI(0.8% MoM, 0.2% YoY) 일 1월 전국 CPI(-1.2% YoY)	미 12월 기존 주택매매(0.7% MoM)
21	22	23	24	25 韩国 통화위원회	26	27
	한 2월 수출입 20일(전년 대비) 미 1월 사기고연방 국기활동 자수(0.8) 1월 기존 주택매매(0.7% MoM) 독 2월 IFO 기업환경지수(90.1) 일 1월 PPI 서비스(-0.4% YoY)	한 2월 소비자실리지수 미 2월 델리스 연준 제조업 활동 미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4Q 주택가격 구매지수(3% QoQ) S&P 코어로직 CS 주택가격지수 1월 선행지수	한 3월 기업경기설사 제조업/비제조업 미 신규주택매매 2월 내구재 주문, 지본재 수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Q GDP, GDP물가지수 유 2월 경기/산업/서비스/ 소비자 기대지수 독 3월 GK 소비자 기대지수 일 1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한 BOK 기준금리(0.50%) 미 2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1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1월 개인소득, PCE 디플레이터 일 1월 소매판매 2월 도쿄 CPI 1월 건설수주, 주택착공건수, 광공업 생산	미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28						
	중 2월 종합제조업/비제조업 PMI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TEL 729-0190)로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 (www.kebhana.com → 외환포털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